

## 痰飲·氣, 二題

李 得 蒼



### 一. 痰飲

痰飲은 몸안에 있는 체액이 멎쳐 병적상태를 이룬것인데 일반적으로 진액이 열의 영향을 받아 찝뚝뚝하게 걸어진 것이 담이고, 진액이 비의 기능장애로 온몸에 고루 퍼지지 못하고 명치 끝이나 옆구리 경맥 등에 머물러 있는 맑고 묽은 것이 음이다. 즉 담과 음은 모두가 진액에서 생긴 것인데 주로 묽고 걸어진 정도와 진액이 몸안에 머물러 있는 곳에 따라 다르게 부른다.

담음은 體液이 순조롭게 운행되지 않아 체강이나 팔, 다리 등에 정체됨으로써 일어나는 수음병(水飲病)의 총칭이다. 肺, 脾, 腎臟 등의 기능실조와 관계가 있고 더욱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비장의 운행기능이 상실되어 水飲이 정체되는 것이 주요원인이다

痰이라는 명칭이 있게 된 것을 고찰해보면 비록 仲景에서부터 시작하였으나 이제 후세에 전하여 痰이든지 痰이 아니든지간에 입만열면 곧 痰火라고 말을 하는데 怪病은 痰때문이라고 말을 한 경우도 있고 痰은 百病의 母라고 말을 한 경우도 있으니 痰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음이 없는것 같은데 痰이 병이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風이나 火로 痰이 생겼으면 단지 그 風과 火를 치료하여 風火가 없어지면 痰은 저절로 깨끗해지고 虛나 實 때문에 생겼으면 虛나 實을 치료하여 虛와 實이 좋아지면 痰은 저절로 깨끗해지고 담을 치료하였는데 風化나 虛實이 저절로 조리될 수 없으며 痰은 병때문에 생긴 것이고 痰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며 그러므로 內經에서 痰을 말하지 않은것은 痰

■ 痰飲 氣, 二題

이 病의 本이 아니고 標이기 때문인 것인데 의사들은 痰을 공격하는 것만을 알고 이것이 병을 치료하는 것이라 하면서 痰이 되는 까닭은 어떤 원인으로 일어나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손가락을 팔이라 하겠는가? 標와 本을 오인하고 主見을 잃고서 병을 낮고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標本 - 병증의 본태를 알고 해당하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것, 병의 원인과 증상을 標本으로 갈라보면 원인은 本에 증상은 標에 속한다 병이 생긴 부위를 標本으로 갈라보면 병이 몸의 속이나 아랫부위에 생긴것을 本, 몸의 겉면과 윗부위에 생긴것은 標에 속한다. 痰과 飲은 비록 같은 종류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이다. 飲은 水液에 속하니 淸水를 구토하고 胸腹이 膨滿하며 吞酸 噯腐하고 渥渥거리는 소리가 있는 증상들은 모두가 水穀의 나머지가 머물러 行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소위 말하는 飲인 것이다

痰과 飲이 다른점은 飲은 맑으나 痰은 稠濁하고 飲은 오직 腸胃에 積이 머물고 있는 것이지만 痰은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 없다. 水穀이 소화되지 않고 머물러 飲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脾胃에서 비롯되지만 痰이 된것은 五臟이 상하면 모두가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치료하는 자는 마땅히 구별하고 本을 살펴야 한다.

痰은 즉 사람의 津液이니 水穀이 변화한 것이 아닌것이 없다 痰은 소화된 것이고 소화되지 않은 것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소화시켜 바른것을 얻게되면 형체도 강하고 營衛도 충실해지는데 痰涎은 본래 모두가 氣血이니 만약 소화시켜 바른 것을 얻지 못하면 臟腑가 병이되고 津液이 敗하여 氣血은 痰涎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역시 亂世의 도적과 같으니 治世의 양민은 아니다. 도적이 좋아하는 것은 國運이 병드는데서 비롯되고 痰涎이 생기는 것은 元氣의 병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氣血을 다 盛하게 하면 어찌 痰이 있겠는가?

痰涎으로 변화하는 것은 본래 水穀에서 비롯되니 결과적으로 脾胃를 건강하게 하면 예들들어 젊은 사람이면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어 모두 氣血을

이루게되니 어찌 머물러 痰이 되겠는가?

오직 그것이 다 소화될 수 없어 十중에서 一~二가 머물게 되면 一~二는 痰이 되고 十중에서 三 四가 머물게 되면 三四는 痰이 되고 심지어 七八이 머물게 되면 氣血은 날이 갈수록 감소되고 痰涎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元氣가 운화할 수 없어 虛할수록 痰은 오히려 盛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痰을 치료하는 자들은 반드시 痰으로 병이 되었으니 공격하지 않으면 어찌 제거 되겠는가? 라고 하니 正氣가 行하지 않아서 虛痰이 모이게 되었으면 힘을 다해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痰은 제거되지 않고 虛한 것이 더욱 虛하여지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공격을 하여 마침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痰에 공격이 가능한 경우는 적고 공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많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장차 痰을 치료하려는 자들은 먼저 虛實을 살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痰에는 虛實이라는 두글자는 전적으로 元氣로서 말한 것이다. 대저 공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實痰이고 공격할 수 없는 것은 虛痰인 것이다. 나이가 젊고 힘이 있으면 氣血이 상하지 않았는데 肥甘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濕熱이 성행하거나 風寒이 外에서 皮毛를 閉하였거나 逆氣가 안으로 肝膈에 이어지거나 하면 모두가 痰飲이 모이도록 할 수 있으니 살피서 形氣와 病氣가 함께 有餘하면 즉 實痰인 것이다.

實痰은 邪氣가 實한 것을 일컫는 것이니 消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단지 痰을 제거해주면 안되는 것이다. 어떤것을 攻할 수 없는가? 형체가 파리하고 氣가 약하며 中氣가 쇠한 것은 虛痰이고 혹 多病하거나 혹은 勞倦 혹은 憂思 酒色으로 勞損을 형성하고 非風으로 졸도하는 것도 역시 虛痰이고 혹은 細數한 맥이 나타나며 臟에 陽邪가 없는데 때때로 嘔惡泄瀉 氣短 聲口喑 등의 증상이 나타남을 살펴봐도 形氣와 病氣에 본래 有餘가 없으면 모두 虛痰인 것이다. 虛痰은 元氣가 이미 虛한 것이니 調補하는 것이 마땅한데 혹시 공격을 하게되면 위태로워진다.

實痰은 본래 많지 않고 오는 것도 급하고 가는 것도 빠르다. 병도 쉽게 치

## ■ 痰飲 氣, 二題

료되는데 병이 본래 깊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반대로 虛痰은 도리어 많으며 심하고 생기는 것도 점차적으로 제거되고 느리며 병도 역시 치료가 어려우니 병이 하루 이틀에 생긴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써 實痰은 크게 염려할 바 없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오직 虛痰일 뿐인 것이다. 요약하면 痰을 치료하는 법은 다른것이 없고 단지 元氣를 강하도록 하면 痰은 반드시 날이 갈수록 감소되니 즉 미약한 痰은 있어도 역시 크게 해가 되지 않고 胃氣를 도와 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元氣가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면 水穀津液이 痰이 아닌것이 없고 제거되면 다시 생기는데 공격하여 제거하면 元氣를 보전하고 병이 없다고 하는 말을 나는 믿지 않는 것이다

痰을 잘 치료하는 자는 오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야흐로 天을 補하는 고수인 것이다. 虛實을 구별하지 않고 공격하려고 하면 되겠는가? 內外의 모든 病은 痰에서 생긴다고 하여 모두다 滾痰丸의 종류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눈앞의 상황만을 알고 훗날에 해가 생긴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五臟에 병이 있으면 비록 痰이 생기도록 할 수 있으나 脾腎에서 비롯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 脾는 濕을 주관하니 濕이 動하면 痰이 되고 腎은 水를 주관하니 水가 넘치면 역시 痰이 되는 것이다. 痰으로 변화하는 것은 脾에 있지 않는 것이 없고 痰의 本은 腎에 있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다.

痰證이 되는 까닭은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니 반드시 脾腎의 두 臟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 \*\* 치료원칙

脾家의 痰은 虛實이 있으니 만약 濕이 滯하여 太過하면 脾의 實이고 土가 쇠약해져 水를 제압하지 못하는 것은 脾의 虛인 것이다. 만약 腎家의 痰이면 虛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이다. 대개 火가 土를 生하지 못하면 火가 水를 제압하지 못하게 되고 陽이 陰을 勝하지 못하면 반드시 水는 도리어 脾를 침범하게 되니 이것은 모두가 陰中の 火가 虛한 것이다 만약 火가 盛하여 金을 태

우면 精이 집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津이 건조하고 液이 마르면 金水가 서로 패하게 되니 이것은 모두가 陰中の 水가 虛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脾腎의 虛實에 같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니 마땅히 구별해야 하는 것이다 濕痰 鬱痰 寒痰 熱痰과 같은 것들은 비록 上에 있고 下에 있거나 寒하거나 熱하여서 각각 다르지만 그것이 생기는 근원은 두개의 臟을 어찌 벗어날 수 있겠는가?

寒痰 濕痰은 脾家の 병이지만 寒濕이 생기는 것이 어찌 腎과 관계가 없겠는가? 木이 鬱하여 痰이 생기는 것은 본래 肝家の 痰이지만 木이 강하면 土를 제압하니 脾와 관계가 없을 수 있겠는가 火가 성하면 金을 剋하면 그 痰이 肺에 있는 것이지만 火邪가 炎上하는 것이 中焦 下焦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痰을 치료하면서 근원을 모른다면 오직 의심하여 더듬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脾胃의 痰은 虛도 있고 實도 있다.

脾土에 濕이 성하거나 음식을 과도히 섭취해서 별다른 虛證은 없고 痰이 생겼으면 이것은 脾家の 本病이니 단지 濕이 滯한것을 제거해주면 痰은 저절로 깨끗해진다. 二陳湯으로 치료하는데 六安煎, 橘皮半夏湯, 平胃散, 潤下丸, 滾痰丸의 종류도 모두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胃가 寒하여 痰을 생하여 脹滿을 겪었으면 和胃二陳煎이 마땅하고 혹시 嘔吐를 겪하고 아프면 神香散이 마땅하다 혹시 飲食때문이라면 麥芽 山楂 枳實 등을 加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脾胃가 허하지 않으면 비록 痰飲이 생겨도 약간 留滯하는 것에 불과하고 脾가 虛하여 음식을 소화할 수 없어 痰이 생기면 그 변화가 가장 많은데 단지 脾胃를 조리하여서 氣를 강하게 해주면 저절로 食積이라는 병도 없게 되고 痰飲도 모두 氣血이 되는 것이다. 만약 脾氣가 약간 허하여 濕을 제압할 수 없거나 運化를 할 수 없어 痰이 되었으면 그 증상은 반드시 음식을 먹는 것이 감소하고 정신이 피곤하며 痞悶하는 증상을 겪하기도 하니 六君子湯, 五味子, 異功散의 종류도 主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약간 虛한데 寒을 겪하였으면 苓朮二陳煎으로 脾氣가 크게 虛한데다 胃寒을 겪하며 嘔惡하고 痰이 많으면 六味異功煎, 溫胃飲, 理中湯 본래 勞倦으로 脾를 상했는데 다시 飢로하여 肝腎을 상하게 되면 脾氣를 상하였으면 음식 감소 惡心이 나타나고 肝腎을 상하면 水液이 妄行하는데 또는 痰飲이 臍下에

■ 痰飲 氣, 二題

서 일어나 바로 上衝하게 되는데 이것은 脾腎이 함께 상한 土의 母인 命門의 병인 것이다 비록 八味地黃丸이 正治하는 것에 해당되나 理陰煎만한 것이 없으며 효과가 신묘하다. 혹시 白朮 陳皮를 加하여도 된다

腎經의 痰은 水가 범람하여 痰이 되는 것인데 虛證이 아닌 것이 없다. 腫脹이 있어서 痰이 생긴것은 水가 脾經에 들어간 것이니 도리어 剋하였다고 하는데 臟이 平하면 六味地黃丸, 左歸丸의 종류도 主하는 것이 마땅하다. 臟이 寒하면 理陰煎, 加減金匱腎氣丸, 八味地黃丸의 종류로 主하다. 溫燥하는 것이 마땅하면 단순히 脾經만을 도와 주어도 濕을 제거할 수 있으니 六味異功煎 理中湯 聖朮煎 虛損하여 痰을 生한 경우는 이것은 水가 虧損되고 金이 말라서 精은 氣로 변화하지 않고 氣는 精으로 변하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 陰을 배양하여서 陽을 고르게 하지 않으면 水氣가 충실하지 않아 痰은 끝내 제거되지 않고 水가 源泉에 돌아가지 못하여 痰은 반드시 屢안치 않게 된다. 左歸飲, 六味地黃丸, 八味地黃丸 등으로 寒熱을 參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陰火가 肺를 침범하여 津液이 건조하여 喉痛하거나 혹은 煩熱하거나 혹은 차가운 것을 좋아하거나 혹은 大便이 實하거나 하면 반드시 살펴서 진실로 火邪가 있어서 痰嗽가 그치지 않으면 四陰煎 一陰煎의 종류에 加減하여 사용해주고, 만약 火가 본래 진실된 것이 아니면 단지 순전히 補하는 것이 마땅하다 風寒으로 인한 痰은 邪가 皮毛로부터 肺를 침범하여 肺氣가 깨끗하지 못하게 되어서 痰이 생긴것이니 이것은 傷寒의 종류이다. 辛味를 따라서 發散시키면 痰은 저절로 낮게되니 六安煎 二陳湯이 마땅하고 심한 경우에는 小青龍湯의 종류도 주관한다. 風寒이 外에서 침범한데다 兼하여 內에 火邪가 있으면 역시 黃芩을 兼해서 사용하면 된다. 만약 兼하여 氣血도 虛하면 단순히 消耗시키는 약을 사용하면 안되므로 金水六君煎으로 主함이 마땅하다

中風으로 인한 痰은 본래 外感이 아니고, 脾腎이 虛해서 敗한 때문이다. 痰을 치료하는데는 마땅히 緩急을 나누어야 한다. 痰涎이 壅盛하여서 上焦를 閉塞시켜 음식과 약을 먹을 수 없으면 이것은 부득불 먼저 痰을 치료하여 清道를 열어주는데 만약 痰이 심하면 오직 吐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痰氣가 심하지 않아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緩을 따라서 本을 구하여 치료하고

공격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六安煎, 二陳湯, 橘皮半夏湯의 조리하는 것도 마땅하다. 만약 火가 盛하여 痰이 생겼으면 淸膈煎, 抽蘇飲의 종류도 主하는 것이 마땅하다. 類中風에서 上焦에 滯한 것이 없고 神昏困倦하지만 胸喉에 氣가 막고 호흡이 고르며 본래 痰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痰이라고 의심하면 안된다. 剋伐消痰시키는 약을 사용하면 敗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雜證에 병세가 심하고 喉에 漉漉하는 痰聲이 있고 호흡을 함에 따라서 점차 심해지면 이것은 위험에 빠진 증후이니 치료하기 어렵다. 痰을 치료하는데는 基本을 구하는 것을 알게되면 痰은 깨끗해지지 않을수가 없다. 痰만 치료하는 것만을 알게되면 그 잘못은 심한 것이다. 痰이 火로 인해 動하게 되었으면 火를 먼저 치료하는 것이 마땅하고 痰이 寒으로 인해 생겼으면 溫中을 위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風痰은 辛溫으로 散하고 濕痰은 燥하며 滲利가 아니면 제거되지 않는 것이다. 鬱痰은 虛實이 있으니 鬱에 怒를 겸하면 肝邪를 억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鬱에 憂를 겸하였으면 肝肺를 배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음식으로 인한 痰도 역시 같지 않으니 寒에 원인 熱이 원인 肥甘한 음식물을 과도히 먹는 것이 원인 酒濕으로 脾를 상한것이 원인 이것은 모두 痰을 생기게 한다. 그 중에 虛實을 구별한다.

脾虛하여 濕을 제압할 수 없고 腎虛하여 水를 수습할 수 없으면 모두가 痰을 생기게 할 수 있는데 虛實을 구별하여 진실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脾虛하여 濕을 제압할 수 없고 腎虛하여 水를 수습할 수 없으면 모두가 痰이 생기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寒痰에 속하는 것이다. 脾陰이 건조하여서 液이 膠로 변하거나 金水가 偏枯하여 痰이 血에 근본을 두고 있는 것은 즉 熱痰에 속하는 것이다 두가지 痰證에서 窒중팔구이니 이것은 모두가 虛寒한 것이니 공격할 수 없는 것이다 峻利시키는 약을 과용하여서 痰이 도리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은 모두가 脾腎이 상한 징조이니 치료를 하는데 本을 구하지 않고서 낮게 한 경우는 없는 것이다 痰에 원인이 表에 있으면 發汗시키면 되고 裏에 있으면 下를 시키고 濕을 挾하였으면 分利시키면 된다. 痰이 膈上에 있으면 반드시 吐法을 사용하는데 瀉를 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痰이 膠固하고 稠濁하면 반드시 吐法을 사용한다. 痰이 經絡속에 있으면

吐가 아니면 안되는데 吐한다는 것에는 發散시키는 뜻이 있다.

痰이 腸, 胃의 사이에 있으면 下를 시키면 낫는다 痰이 四肢에 있으면 竹瀝이 아니면 도달할 수 없다. 痰이 脇下에 있으면 白芥子가 아니면 제거될 수 없다. 痰이 皮裏膜外에 있으면 干汁竹瀝이 아니면 도달할 수 없다

熱痰과 火痰에는 靑黛 黃芩 天花粉 連翹 石膏가 마땅하고 火가 上炎이면 流金膏를 사용한다. 老痰에는 海石 瓜蒌根 貝母가 마땅하고 火盛을 겸하여서 膠固하면 節齊化痰丸을 사용한다.

實痰과 火痰에는 滾痰丸이 가장 효과가 있는데 多用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風痰에는 南星 白附子를 사용한다. 濕痰에는 蒼朮 半夏 茯苓 澤瀉를 사용한다. 食積痰에는 神曲 山楂 麥芽를 사용한다. 酒痰에는 天花粉 黃連 白朮 神曲을 사용하는데 五苓散 四苓散으로 分離시킨다 痰이 結한 核이 인후에 있어 뱉어도 나오지 않으면 化痰시키는 약에 鹹한 약을 加하여 단단한 것을 연하게 해주는데 瓜蒌仁 杏仁 海石 朴硝 海藻에 薑汁을 佐해준다. 竹瀝은 痰을 인도하지만 薑汁이 없으면 經絡을 行할 수가 없다.

荊瀝은 痰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빠르지만 능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竹瀝과 荊瀝에 薑汁을 佐해주면 經絡의 痰을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痰속에 피가 있으면 薤汁을 加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海粉은 熱痰을 맑게 하고 濕痰은 燥하게 하고 堅痰은 軟하게 하고 頑痰은 消하는데 丸藥에 넣어도 可하고 煎藥에 넣어도 가능하다 南星 半夏는 風痰 濕痰을 치료한다 石膏는 痰火를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黃芩은 熱痰을 치료하는데 下行하도록 한다. 枳實은 痰을 치료하는데 담을 두드리고 벽을 무너뜨리는 공이 있다. 五倍子는 능히 老痰을 치료할 수 있고 다른 약을 佐해주면 크게 頑痰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데 아는 사람은 드물다 (頑痰 = 완고한 담) 완담이 가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天花粉은 熱痰 酒痰을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적인데 또한 膈上의 (心脾間胸) 熱痰을 크게 치료한다고도 말한다.

玄明粉은 熱痰 老痰을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적인데 火를 降下시키고 堅한 것을 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硝石 礞石은 크게 痰結을 제거하고 痰火를



降下시키는데 아주 곱게 가루를 만들어 白糖과 섞어 손바닥에 놓고 혀로 핥아 먹으면 매우 효과가 있다. 蒼朮은 痰飲이 窠囊을 형성한 것도 치료하는데 痰을 行하게 하는데 매우 효과가 있다. 또한 痰이 瘀血을 挾하여 窠囊을 형성한 것도 치료하는데 즉 神朮丸의 종류가 있다. 潤下丸은 降痰시키는데 가장 효과가 있는데 常服하여도 가능하다 小胃丹은 實痰 積飲을 치료하는데 반드시 사용하는 약인데 두세번 복용하면 낮게 되지만 虛하면 사용할 수 없다. 中氣가 부족하여 痰이 생기면 반드시 人蔘 白朮을 사용하고 內傷에 痰을 挾하였으면 반드시 人蔘 黃芪 白朮의 종류를 사용하는데 薑汁을 많이 사용하여 복용하거나 또는 半夏 茯苓을 加해준다. 中焦에 痰이 있으면 胃氣도 역시 이것에 의지하여 자양을 받으니 갑자기 峻攻을 하면 안되는데 다 공격을 하면 크게 虛해지게 된다.

張子和의 吐法 獨聖散 茶調散 薑汁 등등 계속 그치지 않고 사용했더니 비록 諸痰은 점차 물러가나 元氣는 회복이 안되어 단지 五更쯤 되어서 음식이 소화된 후에 서서히 氣를 들이마셔 이 氣로 인해 들어올려주니 몇번 하지 않아 먼저 清涎이 나오고 다시 들어올리니 膠濁한 것이 뒤따라 나오게 되었다. 이후에 諸疾病에 걸리면 表裏虛實을 막론하고 비록 변증이 百出하여도 절대로 약을 복용하지 않고 단지 한번 吐法을 행하게 되면 그날로 다 제거되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그후 나이 육십정도 될때까지 한달 또는 두달에 한번씩 반드시 行하니 전연 힘이 들지 않고 鶴髮童顏에 날이 갈수록 원기가 왕성하고 몸이 튼튼하게 되었다.

뱀는 본래 痰을 제거하니 어찌 모든병에 다 吐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吐는 元氣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바인데 하물며 나이가 들었는데 능히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선친이 말하기를 吐로 痰을 치료한다는 것은 너도 알고 있는 바이지만 吐로써 百病을 치료한다는 것도 너는 아는가. 吐하면 元氣를 상한다는 것을 너도 알고 있는 것이지만 吐가 능히 氣를 생하게 한다는 것도 너는 역시 알고 있는가?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해 상세히 이야기 하겠다. 痰積을 잘 치료하는 사람으로서는 子和의 三法과 丹溪의 倒倉法만한 것이 없는데 행하기가 쉽지 않아 子和의 방법이 효과가

■ 痰飲 氣, 二題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子和의 吐法은 약을 사용하여 吐하는 것인데 반드시 苦劣하여 吐하는 것이 용맹하니 그 형세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吐하는 것은 약을 사용하지 않고 吐하는 것인데 痰이 氣를 따라 行하고 氣로 인해 痰이 도달하여 서서히 질병이 없어지므로 이익은 있어도 손상은 없다 子和의 방법은 그 사용함이 급함에 있는 까닭으로 有餘한 實痰을 공격하는 것이고 나의 方法은 사용함이 緩함에 있는 까닭으로 不足한 모든 병을 견할 수 있는 것이다. 百病의 원인은 본래 한결같지 않은데 어찌하여 모두 吐가 마땅한가 하면 만약 痰涎이 壅盛하여 胃脘을 막아 淸道가 통하지 않으면 부득불 吐를 해야하며 稠濁이 膠固하여 약으로 제거되지 않으면 부득불 吐를 해야하고 積聚로 急痛이 있어 쉽게 풀어지지 않으면 부득불 吐해야 하며 痰이 經絡 膜竅에 있거나 痰이 隱伏하여 상태를 말하기 어려운 것은 깊이 숨어 있고 먼곳에 쌓여있어 약이 도달하기 어려우니 부득불 吐를 하게 되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쉽게 알고 있는 것이다 吐는 능히 氣를 도달하게 하므로 氣가 따르게 되면 신기한 효능이 있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기괴하고 난치인 병을 의사들이 모든 기술로써 치료를 하여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吐法을 사용한다. 氣를 生한다는 說은 내가 몸소 행하여 비로소 그 미묘함을 깨닫게 된다 天地의 淸이 없는 기전은 요약하면 오직 升降의 二氣에 있으니 升은 陽에 근본을 둔 生長의 道이고 降은 陰에 근본을 둔 消亡의 道인데 내가 氣를 사용함에 升하는 힘을 빌린것인데 빠르게해도 가능하고 천천히 해도 가능하며 자연의 生意를 밟고 마시면서 吐한 후에는 神氣가 반드시 배로 왕성해지니 오직 병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수명도 연장시키니 반드시 명심하도록 하였다. 百世의 뒤에 이러한 心傳妙法의 道가 없어질까 그 방법을 열거한다

매일 五鼓 잠이 깰 무렵 바로 누워서 트림을 하여 氣를 들어주는데 氣가 충분하지 않으면 氣를 마셔 트림을 하는데 마시는대로 따라서 들어주면 痰涎이 반드시 氣를 따라 오게 된다 비록 가장 깊은 곳에 있는 痰이라 하더라도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뒤에 나오는 것은 形色과 臭味가 심하고 紫黑 酸惡

하여 감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매번 吐한 후에 혹시 입술이 붓고 咽痛이 있게되면 凉水를 한두번 입에 머금었다가 삼키면 풀리게 된다. 吐를 다한 후 아침 일찍 五味를 두루 갖춘 음식을 먹는데 담백한 죽 한 두 그릇으로 胃中の 清氣를 자양해준다.

吐法을 행한지가 사십여년이 되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건강해져서 나이 팔십정도에 능히 등산을 하고 내려온 후에는 古書를 抄하였으며 그후에 병도 없는데 갑자기 어느날 아침 웃음을 머금고 음식을 물리치니 향년 팔십이세였다.

飮에 네가지 ① 痰飮 ② 懸飮 ③ 溢飮 ④ 支飮

① 사람이 본래 肥盛한데 이제 여의고 水腸의 사이에 있어 꿀꿀거리며 소리가 나는 것을 痰飮이라고 한다. ② 물을 마신후 水가 脇下에 있어 咳嗽하던 당기고 아픈 것을 懸飮이라고 한다. ③ 물을 마신후 水가 흘러 四肢로 가면 汗出하는 것이 마땅한데 汗出하지 않고 신체가 疼痛하는 것을 溢飮이라고 한다 ④ 咳逆하여 기대어서 숨을 쉬고 氣短하여 누울 수 없으며 형태가 腫한 것 같은것을 支飮이라고 한다. 痰飮이 있으면 溫藥으로 조화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積飮은 留飮이 쌓여 흩어지지 않는 것이다. 水는 燥를 消散되지만 濕을 얻으면 消散되지 않아 積飮이 되니 土濕이 병을 主하는 때문이다. 대략 원인 寒濕과 濕熱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痰證은 風痰 熱痰 濕痰 酒痰 食痰이 있으며 갑작스러운 風痰은 形寒飮冷한 것이요. 熱痰은 火가 盛하여 金을 제압한 것이고 濕痰은 停飮이 흩어지지 않는 것이고, 酒痰과 食痰은 먹고 마시는 것을 과도히 한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津液은 血의 나머지며 脈外를 行하여 온몸을 유통하니 마치 하늘의 맑은 이슬과 같다. 血이 탁하고 氣가 탁하면 凝聚하여 痰이 되는데 痰은 진액이 변화한 것이며 痰은 온몸의 上下에 도달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한다. 진액은 온몸에 존재하니 津液은 脾胃에서 生하고 水穀에서 형성된 것인데 濁하면 痰이 되는 까닭으로 痰은 脾土에서 생성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痰火證은 脾氣가 부족한 것이 원인인 경우도 있고 脾氣가 鬱滯한 것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 脾肺의 氣가 虧損된 것이 원인인 경우도 있고 腎陰이 虛하여 水를 수습할

■ 痰飲 氣, 二題

수 없어 범람하여 痰이 된 경우도 있다. 脾氣가 虛하여 涎을 수습할 수 없어 위로 넘쳐 마치 痰과 같은 경우도 있다 熱로 인해 痰을 生한 경우도 있으며 痰으로 인해 熱을 生한 경우도 있으며 風寒暑濕으로 인해 얻은 경우도 있으며 驚으로 인해 얻은 경우도 있고 脾虛하여 運化할 수 없어 생긴 경우도 있다. 胸中에 痰이 鬱하여 마치 귀신이 붙은 것 같은 경우도 있다. 각기 원인을 살펴서 치료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脾胃는 倉廩이고 곡식을 받아들인데 脾가 약하여 運轉할 수 없으므로 인해 氣血이 滋養을 받지 못하게 되는 까닭으로 氣道가 壅滯하여 中焦가 水穀을 腐熟시킬 수 없어 마침내 停滯하여 痰이 되고 飲이 되는데 그것이 변화하면 寒이 되고 熱이 되고 喘이 되고 咳가 되고 嘔吐가 되고 反胃가 되고 腫滿이 되고 眩暈이 되고 風癇이 되고 噎氣가 되고 吞酸 嘈雜이 되고 噎隔이 되고 怔忡이 되고 疼痛 등이 되니 痰의 變病인데 그 근원은 脾濕이 運轉하지 못해 水穀津液이 停滯한 소치에서 나오는 것이다.

陰水가 부족하여 陰水가 상승하면 肺가 火邪를 받아서 肅降을 하지 못하게 되니 이로 말미암아 津液이 凝濁하여 痰을 生하고 血은 生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麥門冬 熟地黃 枸杞子와 같은 潤劑로써 滋陰을 하여 上逆한 火가 腎으로 돌아오면 痰은 저절로 淸하게 되는데 二陳湯을 투여하면 즉시 위태롭게 된다. 腎虛하여 納氣歸原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는데 原에서 나와서 歸原하지 못하면 積이 되고 積이 흐터지지 않으면 痰이 생기게 되니 八味丸으로 主한다고 하였다

八味丸은 痰의 本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蒼朮을 사용하여 痰이 한곳에 窠囊을 형성한 것을 치료하였는데 行하는 것이 매우 묘하다. 痰이 瘀血을 挾하면 마침내 窠囊을 형성하게 된다. 脾虛하면 中氣를 淸하게 하여서 痰을 運轉시켜 降下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二陳湯에 白朮 등을 加함. 겸하여 升麻를 사용해서 提起시켜준다.

二陳湯은 온몸의 痰을 모두 치료하는데 下行시키려면 引下시키는 약을 加해주고 上에 있으면 引上시키는 약을 加해준다. 몸의 上中下에 塊가 있으면 대부분 이것은 痰이니 淸상시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물어서 吐下시킨후

에 약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痰은 脾胃에서 생기니 實脾 燥濕하는 것이 마땅하며 氣를 따라 상승하면 먼저 順氣를 하고 그 다음 分道하며 氣가 상승하는 것이 火에 속하면 順氣는 降火시킨다. 熱痰이면 清하게 하고 濕痰이면 燥해 주고 風痰이면 散해 주고 鬱痰이면 開해 주고 頑痰이면 軟하게 하고 食痰이면 消해 주고 上에 있으면 吐하게 하고 中에 있으면 下를 시키고 中氣水虛하면 中氣를 견고하게 하여서 痰을 운행시킨다 만약 너무 심하게 공격을 하면 胃氣가 虛해져서 痰이 오히려 심해진다고 하였다. 痰證에 음식생각이 적고 혹은 胸膈이 不利하면 이것은 中氣가 虛弱한 것이니 마땅히 補中益氣湯을 위주로 사용하여서 中氣가 건강해지면 痰은 저절로 運化된다 만약 腎氣가 虧損되어 津액이 하강하기 어려워 敗하여 濁해져서 痰이 되는 것은 六味地黃丸을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데 腎氣가 壯해지고 津液이 清하게 되면 어찌 痰이 있겠는가? 脾胃가 虧損됨으로 인해 中焦氣가 허해 運化할 수 없어 痰이 된 경우도 있다 峻厲한 약을 과도히 사용하여 脾氣가 더욱 허해져서 運化할 수 없어 津액이 凝滯하여 痰이 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은 모두 脾胃를 건강하게 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痰은 脾胃의 津액이나 혹은 飲食에 상하거나 혹은 七情六淫이 요동시켜서 氣가 막혀 痰이 모이게 된다. 脾는 統血行氣하는 經이니 氣血이 모두 다 성하면 어찌 痰이 있겠는가? 과도한 思慮나 음식에 상하여 經絡을 손상시켜 脾血이 이미 허해져 胃氣만 홀로 盛하니 이로써 濕이 氣로 인해 변화하는 까닭으로 痰이 많이 되는데 온몸을 유행하여 도달하지 않는 곳이 없으며 痰氣가 이미 盛하면 客이 반드시 主를 이기게 되니 혹시 脾의 大絡의 氣를 뺏으면 갑자기 땅에 넘어지니 이것은 痰厥이고 肺에 들어가면 喘急 咳嗽하고 心에 들어가면 怔忡 恍惚하며 肝에 들어가면 眩暈 不仁 脇助脹痛하고 腎에 관계하면 물을 마시지 못하고 흔히 痰을 뱉게 되고 胃脘에 머무르면 嘔瀉惡寒 發熱하며 胸에 머무르면 咽膈이 不利하고 眉稜骨이 아프며 腸에 들어가면 꿀꿀거리는 소리가 있는데 흠어지면 소리가 있고 모이면 不利하게 된다고 하였다

脾氣가 虛弱하여 濕을 소모시킬 수 없으면 補中益氣湯 加 茯苓 半夏가 마땅하다. 脾氣가 虛弱하여 濕熱때문이면 東垣清燥湯 胃氣가 虛弱하여 寒痰이

■ 痰飲 氣, 二題

凝滯하였으면 人蔘理中湯이 마땅하다 脾胃가 虛寒하여 痰이 凝滯하였으면 理中化痰丸이 마땅하다. 脾虛로 運化할 수 없어 痰滯 氣逆하였으면 六君子湯 加 木香이 마땅하다.

脾胃가 虛弱하여 肝木이 乘하였으면 六君子湯 加 柴胡가 마땅하다 肺氣가 虛弱하여 清化할 수 없어 痰이 있으면 六君子湯 加 桔梗이 마땅하다 頭痛이 있으면 半夏白朮天馬湯을 사용한다 脾腎 虛弱한데 寒邪가 乘해서 頭痛하면 附子細辛湯을 사용한다 風痰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만약 肺經의 風熱이 痰을 生했으면 金沸草散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風化相捕하여서 肝經에 風熱 熾盛하게 되어 痰이 생겼으면 牛黃抱龍丸이나 牛黃清心丸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肝經의 血이 燥하여 痰이 생겼으면 六味地黃丸이 마땅하다. 腎虛로 陰水가 炎上하였으면 六味丸이 마땅하다. 七情이 鬱結하여 痰涎이 喉間에 滯하였으면 먼저 四七湯을 사용하여 氣滯한것을 조화시키고 난뒤 歸脾湯을 사용하여 脾血을 調理하고 補해준다. 脾胃氣虛가 本이고 氣滯鬱結이 標인 것이다 호흡기계, 순환기계, 비뇨기계, 신경계, 정신과, 부인과, 소아과 등등 痰으로 병이 되는 종류들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痰을 많이 뱉을때는 化源을 자양해주면 痰은 저절로 없어지게 된다 形氣가 충실할 경우에 쓰는 약을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허약한 사람이 사용하면 肚腹이 脹滿해진다 肝木이 脾土를 乘하여 風痰이 壅滯하였으면 半夏 南星을 加하여 痰을 깨끗하게 한 후 六君子湯 종류를 사용하여 胃氣를 조리해주면 痰은 저절로 오지 않게 된다 만약 개괄적으로 風藥을 사용하여 陽氣를 소모시키고 陰血의 원천을 끊어버리면 風을 형성하고 병이 더 심해지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脾氣가 虧損되어서 痰이 中焦에 침입하여 清道를 막아 四肢百骸에 여러가지 병이 생겼으면 마땅히 脾氣를 壯하게 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겸하여 痰을 치료한 것은 佐해주면 中氣가 건강해져서 痰涎은 저절로 소화가 된다. 사람의 氣가 順行을 하면 진액이 流通하게 되니 痰病은 없다. 古方에서는 痰을 치료하는데 汗下濇利를 사용하였는데 먼저 順氣를 하고 그 다음에는 分導시키는 것만큼 좋지는 않다. 氣가 순행하면 痰飲이 운행을 하여 下行해서 小便을 따라서 나오게 된다고 하였는데 順氣는 단지 한가지 경우에 불과하다. 요점은 痰의 深淺

을 살펴보면 痰積이 膠固하여 氣道가 순행하지 않으면 먼저 積痰을 제거한 후에라야 氣가 順行할 수 있으니 어찌 理氣시키는 한가지 방법으로만 전적으로 주관하겠는가. 理氣시켜서 痰이 없어지는 것은 미약한 것을 치료하는 것이고 逐痰하여서 氣가 바야흐로 순행하게 되는 것은 심한 것을 치료하는 것이니 두가지 다 痰을 치료하는 방법이니 한가지라도 없으면 안된다. 痰과 氣 중에서 어느 것이 가볍고 어느것이 심한지를 살펴보면 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있고 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 까닭으로 逐痰과 理氣는 선후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痰의 분야도 너무나 광대 무변하여서 학생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고찰해서 어두운 분야를 밝게 하므로 임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

失精 = 性호르몬의 자연유실 과다증이다

世俗에서 患者가 모두 脈診만을 제일로 삼으나 脈診이 四診가운데 가장 끝으로 巧라고 함을 모르기 때문이다

上土는 診法의 全體를 理解하여야 하니 四診을 具備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四診 望 聞 問 切의 診察方法

巧는 四診을 神聖工巧라고도 하니 巧는 곧 切診을 말한다

## 二. 氣에 對하여

사람이 穀食에서 氣를 얻어 穀食이 胃에 들어가서 肺에 傳하면 五臟六腑가 그 기운을 받아서 맑은 것은 榮이 되고 濁한 것은 衛가 되어 榮은 脈中에 있고 衛는 脈外 있어서 周回하여 다시 모여서 陰陽이 서로 貫通하여 고리와 같이 끝이 없다 上焦가 五穀의 滋養을 開發宣布하여 肌膚를 熏蒸하고 身體를 充足시키며 毛髮을 光澤케 한다. 이것이 霧露의 灌溉와 같은 것이며 氣가 거기서 나온다. 날마다 飲食의 攝取하는 精氣가 氣를 補益하는데 이 氣란 穀食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氣와 米를 合한 것이 氣字가 되는 것이며 人身가운데

天地陰陽造化의 氣를 具備하고 있는데 부지런히 攝生하고 몸을 調養하고 慾心과 勞苦를 조절하면 氣가 壯健하고 氣가 길며 영원하리라. 대저 사람이 생이 있는 것은 天地의 氣化를 받지 않음이 없고 형체를 이루는데 있어서는 비록 五行 五志 五臟六腑의 구별이 있으나 오직 氣血이 用이 되는 것이다. 血은 氣가 없으면 行하지 못하고 血은 氣가 아니면 변화할 수 없고 血은 神氣이다. 血과 氣는 진실로 이름은 다르나 같은 종류이니 실제로 오직 氣가 主가 되는 것이다. 氣가 바른것을 얻게 되면 어떠한 작용도 감출 수 없고 한번이라도 어긋나서 氣가 바름을 잃게 되면 어찌 가는 것이 막히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黃帝가 말하기를 모든 병은 氣에서 氣를 모르면 病을 치료하는데 무엇을 근거하겠는가. 대저 모든 병은 氣에서 생기니 바로 氣가 用이 되어 도달하지 않는 곳이 없고 한번이라도 조화를 잃게 되면 병이 되지 않음이 없는 까닭으로 外에는 六氣의 침범이 있고 內로는 九氣의 亂이 있어 虛가 되고 實이 되고 熱이 되고 寒이 되어 그 변화하는 것을 형용할 수 없게 되는데 근본을 구하고자 하면 다시 한개의 氣라는 글자이면 다인 것이다. 氣가 조화되지 않는 곳이 있으면 이곳의 병의 本이 존재하는 곳인데 이것은 오직 明哲하여 그곳을 볼 수 있으니 그곳은 집어서 조리하여 妙함을 얻으면 結한 것이 풀리게 되고 더러운 것이 씻겨 나가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기가 어려운 것은 氣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조리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데 있는 것이니 木香 檳榔은 調氣를 한다고 하니 허물이 역시 심하다. 調라고 하는 것은 不調한 것을 조리한 것을 일컫는다. 氣에 바르지 않음이 있는 것은 모두가 調和에 의지하고 있으니 邪氣가 表에 있으면 散이 즉 調이고 邪氣가 裏에 있으면 行이 즉 調이고 實邪가 壅滯하였으면 瀉가 調이며 허약하면 補가 즉 調인 것이다. 調氣하는 大法은 대저 寒해주고 熱해주고 溫해주고 淸해주고 升해주고 降해주고 抑해주고 舉해주고 發해주고 達해주고 劫해주고 奪해주고 堅해주고 削해주고 泄해주고 利해주고 潤해주고 燥해주고 收해주고 澁해주고 緩해주고 峻해주고 和해주고 安해주고 正은 正治하고 假는 反治해주면 반드시 맑고 조용해져서



각기 氣가 안정되면 병이 제거되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은 모두가 調氣하는 大法이니라.

喜는 憂를 이기고 悲는 怒를 이기고 怒는 思를 이기고 思는 恐을 이기고 恐은 喜를 이기는 것과 같은 것은 情志의 氣를 조리해 줄 수 있으며 五穀 五果 五菜 五畜과 같은 것은 化育의 氣를 조리할 수 있고 春夏에는 陰을 배양하고 秋冬에는 陰을 배양하며 風寒을 피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기거를 신중히 하고 喜怒를 조화하면 衛生의 氣를 조리해 줄 수 있는 것이다

情과 氣는 互根의 작용이 있고 陰陽을 반대로 시행하는 것도 있으니 혹은 塞해주나 실제로는 通하게 하는 것이고 혹은 啓해주나 실제로는 封하는 것이며 혹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지만 나는 없는 것을 보고 혹은 병이 여기에 있으나 도리어 저곳을 치료하니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능히 미연에 볼 수 있는 것이고 오직 인자한 사람만이 사람에게 진실로 있는 것을 애석해 여길 수 있으니 이와같은 것은 調理하는 것을 일컫지 않는 것이 없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 수 있으면 어찌 오직 병만을 물리치겠는가?

內로는 心身것, 外로는 정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로 인해 조리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것이다. 심하다 調에 뜻이여 그 道는 둥글고 그 用은 넓다. 九氣의 氣는 예를들어 天地의 氣도 정상이면 안정이 되나 변하면 병이 되는데 하물며 사람은 天地의 氣를 받았고 外로는 五運이 교대로 침범하고 七情이 다투니 聖人は 氣를 아껴 지극한 보물처럼 여기나 용렬한 사람들은 물건을 버리듯하여 도리어 太和를 상하게 하니 모든 통증은 모두 氣에서 비롯되고 모든 병은 氣에서 생긴다고 한다 氣는 하나인데 접촉하는 것에 의해 아홉가지가 되는 것인데 怒喜悲恐寒飢驚思勞가 이것이다.

① 怒氣가 이르게 되면 嘔血이 되고 飧泄이 되고 陽厥이 되고 胸滿脇痛이 되고 음식을 먹으면 氣가 逆하여 소화되지 않고 喘喝心煩이 되고 肥氣目盲이 되고 耳聾이 되고 筋緩이 된다.

② 喜氣가 이르면 笑不休가 되고 毛革이 焦하게 되고 肉病이 되고 陽氣가

■ 痰飲 氣, 二題

不收하게 되는데 심하면 狂이 된다.

③ 悲氣가 이르게 되면 陰縮이 되고 筋攣이 되고 肌痺가 되고 肺痿가 되고 目, 昏이 되고 氣少하여 호흡이 이어지지 않게 되고, 울면 臀部가 마비된다

④ 恐氣가 이르게 되면 破腠肉脫하고 骨酸痿厥하고 갑자기 清水를 下하게 되고 面熱膚急하게 되고 陰痿가 되고 두려워하며 턱이 빠지게 된다.

⑤ 驚氣가 이르게 되면 潮涎이 되고 目瞤이 되고 痴癇口禁이 되고 人事不省이 된다.

⑥ 思氣가 이르게 되면 不眠이 되고 嗜臥되고 昏瞶이 되고 中이 痞하여 三焦가 閉塞이 되고 筋痿가 되고 失氣를 하면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된다

⑦ 寒氣가 이르게 되면 上下로 나오는 水液이 맑고 淸冷하고 靑白色을 下利하게 된다.

⑧ 炆氣가 이르게 되면 喘嘔吐酸하고 暴注下迫하게 된다고 하였다. 氣가 實하여 壅盛한 경우에는 補가 필요없지만 內傷 勞役으로 正氣가 虛한 경우이면 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正氣가 虛한데 補하지 않으면 虛한 것이 더욱 虛하게 되어 脾胃가 運化受納하는 기능이 모두 직분을 잃게 되어 陰은 升하지 않고 陽은 降하지 않게 되니 天과 地가 不交하는 否괘가 되는 것이다.

虛하면 補한다 하였으니 人蔘 黃芪에 속하는 것이 이것이다 虛實을 살피지 않고 破氣 行氣시키는 약을 투여하여 天真 元氣가 소모시켜 眞元이 상실되면 運命을 초래하니 삼가하고 삼가할지니라.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286번지 영화당한약방 ☎ 061-472-0035)